정헌공종회 임시총회 열어

위토 임야 매도 등 결의

▲ 정헌공종회의 총회가 열리고 있다

추밀공파 시조후 14세 정헌공正獻公 성휘 왕후王煦의 종중 정헌공종회가 5월 26일 11시 서울 동대문 부근에 소재하는 ‘강남회관 에서 임시총회를 열었다. 예하 각파별 대의원 형식의 종원 40여 명이 모였고 의제는 종재 마련을 위해 위토 일부를 매도하는 것과 종회장의 연임, 총무를 사무처장으로 격상하는 건 등이었다. 정헌공계는 추밀공파 양대계파의 하나로서 그 전국에 퍼진 후손이 10만을 헤아리나 그 묘역이 경기 장단의 임진강 북안 민통선 안에 소재하는 관계 등으로 종중 구성과 유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 지금까지 향사를 받드는 외에 목적사업을 크게 펴지 못해왔다.

회의는 권석원權錫遠 총무의 사회로 시작되어 개회 의례를 마치고 권준식權俊植 회장이 참석자들에게 원근에서 오시느라 수고하심을 치하하고 어려운 정헌공 종중의 제반사에 보다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권석원 총무가 경과보고를 하면서 금년 가을 장단 현지의 정헌공 이하 열위의 향사 문제가 당면한 종회의 업무인데, 이번 향사의 제수는 화산부원군 종중에서 준비할 차례인만큼 유루가 없을 것임을 언명하였다.

다음 안건 처리로 들어가, 임기가 반년 정도 남아 있는 권준식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해 연임시키자는 안건이 상정되어 가결되었다. 총무를 사무처장으로 격상시키는 문제도 사실상 명칭을 변경하는 외에 실효적 부담이 없는 것이어서 이의 없이 통과되었다. 정헌공 묘산의 위토 중 장단군 진동면 하포리 저운동의 산110번지 임야를 매각하는 건은 찬반토론이 있었다. 현재 큰 용도가 없이 방치되어 있는 임야 일부를 매각하여 이를 종재로 현금화하여 예치하고 그 이식으로 경상비 등을 충당하자는 안에 다수가 찬성하였다. 소수는 7백년 동안 선대에서 유전해온 종토를 지금 목전의 시재가 부족하다고 하여 매각하는 것은 자손된 도리가 아니라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사진 · 글 權炳逸>

격려에 감사합니다

4월 22일 안동시 북후면 도계서원에서 20만 원을, 4월 25일 부안군 행안면 권재옥權在沃씨가 5만 원을, 4월 26일 정읍시 영원면 태산사에서 10만 원을, 5월 17일 산청종친회(회장 權玟鎬)에서 20만 원을, 5월 23일 추밀공파 정헌공계 청류당순형공종회(회장 권동균權東均)에서 10만 원을 협찬하여 주시었습니다.

몽결초한송夢決楚漢訟 【8】

꿈에 판결한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 등의 송사

權 光 旭 역주

죽어서 무공武公의 시호를 받았다. 일찍이 그 어머니가 항우에게 잡혀, 항우가 이를 군중軍中에 두고 유방의 휘하에 있는 그를 부르니 왕릉이 사자使者를 보냈다. 그 사자에게 왕릉의 어머니가 ‘나를 위해 능陵에게 전하라. 한왕漢王을 잘 섬기고 어미를 연고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고 칼에 엎드려 죽어 열녀전烈女傳에 올랐다) · 조참曹 (유방의 동향 패沛 출신으로 소하蕭何와 함께 기병하여 고조가 등극하자 건성후建成侯가 되고 다시 천하가 평정되어 평양후平陽侯로서 제齊나라의 상相이 되어 나갔다. 소하가 죽자 들어와 한의 재상이 되었는데 거사擧事를 변경하지 않고 소하가 약속한 바를 일률로 준수하니 세상에서 소규조수蕭規曹隨, 소하의 규칙을 조참이 따른다 하였다. 또 소조蕭曹를 아울러 일컬었다. 죽어 의공懿公으로 시호되었다) · 진평陳平(하남河南의 무양武陽 사람으로 항우의 휘하에서 도위徒尉로 있다가 유방에게 귀의하여 호군중위護軍中尉가 되었다. 유방의 통일천하에 공을 세워 곡역후曲逆侯에 좌승상이 되어 주발周勃과 함께 여씨呂氏 일족을 멸하고 문제文帝를 세웠다. 진평분육陳平分肉이라는 성어가 있는데 그가 소시에 고상리庫上里에 살 때 향리의 사제社祭를 지내고 부로父老에게 주육酒肉을 고루 나누어 주어 칭찬받은 일을 말하며 이를 진평재사陳平宰社라고도 한다. 또 진평석陳平蓆이라 하면 그가 소시에나 출세해서나 누항陋巷에서 낡은 삿자리문을 치고 살아 청빈한 현사賢士의 본보기가 된 것을 말하고, 진평종묵陳平從默이라 하면 진평이 침묵을 지켰다는 뜻이다. 독녀毒女 여후呂后가 여씨를 세울 일로 진평에게 물으니 그가 묵묵부답이다가 기회를 기다려 여씨 일족을 제거하고 유씨의 사직社稷을 보전한 일을 말한다) · 수하隨何(유방의 알자謁者, 빈객을 주인에게 안내하는 자로서 초楚나라의 회남왕淮南王 영포英布를 회유하여 한왕에게 귀의하도록 유인했다) · 육가陸賈(초楚 땅 사람으로 유방 휘하에서 태중대부太中大夫가 되어 평천하平天下 후에 남월왕南越王이 되어서는 조타趙 를 설득하여 복속시켰다. 변설에 능하여 육가의 혀라는 뜻의 성어 육가설陸賈舌이 생겼으며, 육가분금陸賈分金이라는 성어도 있다. 퇴귀退歸 후 자손에게 금재金財를 균등히 나누어 주어 후일의 재산 다툼이 없게 했대서 생긴 말이고, 낭탁囊 을 털어 나누어 주듯 했대서 이를 육가분탁陸賈分 이라고도 한다) · 장량張良(한韓나라 사람으로 그 자字가 자방子房이어서 장자방으로 많이 불린다. 진秦을 멸하여 조국 한나라의 원수를 갚고자 박랑사博浪沙에서 역사力士를 써 진시황을 격살코자 했으나 실패하였다. 황석공黃石公에게서 태공병법太公兵法을 얻어 유방을 도와 평천하하고 유후留侯가 되었다. 만년에 황제黃帝와 노자老子의 학을 공부하고 소하蕭何 · 한신韓信과 함께 한삼걸漢三傑로 일컬어지되 그 으뜸이 되었으며 사후에 문성文成의 시호를 받았다. 장량추張良椎라 하면 박랑사에서 역사가 시황을 저격狙擊했던 철퇴이고, 장량소잔張良燒棧이라는 성어는, 장량이 패공 유방으로 하여금 항우의 신용을 얻게 하고자 설득하여 파촉巴蜀으로 드나드는 외길 벼랑에 선반처럼 달아맨 잔도棧道를 불태워 파촉에 머물러 있을 결의를 보인 고사이다)과 주은周殷 · 은개殷盖 · 장감章邯(감邯을 한 또는 함으로도 발음하며 진의 2세 시 무장으로 진승陳勝과 항량項梁 등의 난을 진압했으나 뒤에 거록鉅鹿에서 항우에게 패해 항복해서는 옹왕雍王이 되었다. 그리고 항우와 더불어 유방을 공격하다 패하여 자살하였다) · 사마흔司馬欣(진秦나라 장감章邯의 장사로서 장감이 항우와 맹약함에 따라 제후에 봉건되어 색왕塞王이 되었다. 뒤에 한왕 유방이 삼진三秦을 공파하니 한나라에 항복했다가 다시 모반하여 싸우다 패하여 자살하였다) · 동예董翳(진秦나라 장수로 항우에게 항복하여 적왕翟王에 봉건되었으며, 뒤에 유방을 공격했으나 패하였다) 등을 모두 불러들여 차례대로 낱낱이 물었다. 그런 다음 이좌거李左車(조趙나라를 섬겨 광무군廣武君이 되었는데 한신韓信과 장이張耳가 조나라를 침공하니 조왕을 권하여 대적치 말고 기병奇兵을 써 양도糧道를 끊으라 했으나 조왕이 듣지 않고 싸우다 한신의 배수진에 패했다. 그가 포로가 되니 한신이 풀어주고 스승으로 섬겼으며, 이로부터 계교計巧를 내 연燕나라의 여러 성을 함락시켰다)를 불러들여 묻기를,

“너는 항왕에게 거짓 항복하여 구리산九里山으로 유인해서는 패망케 하였으니 항왕이 어찌 절통치 아니하리오.”

하고 또 전부田夫를 불러 꾸짖어 가로되,

“너는 민간의 한 농부이니 초한楚漢 싸움의 풍진風塵에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네가 또한 초나라 백성이어늘 항왕이 군사軍事에 패하여 강동江東(양자강 남쪽의 동부 지방)으로 향하다가 길을 잃어 네게 물었거늘, 네가 무삼 심사로 그릇 가르쳐 좌편 길로 가라 하여 대택大澤(진말秦末에 진승陳勝과 오광吳廣이 봉기한 곳으로 안휘성安徽省 숙현宿縣 남쪽의 소류촌小劉村이다) 가운데 빠지게 하였더뇨.”

하니 이좌거와 전부가 능히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염라왕이 정히 일을 처결코자 하여 막 자리를 가다듬을 때, 문자門者가 안에 대고 큰 소리로 아뢰었다.

“초楚(호남湖南과 호북湖北 두 성省 지역인데 호북성 일대이다. 주대周代의 제후국諸侯國으로 전국시대 칠웅七雄의 하나이고 성은 미 씨, 시조는 죽웅 熊, 형산荊山 일대에 건국하여 형만荊蠻이라고도 한다. BC 223년에 진秦에게 멸망하고 진말에 여기에서 진승陳勝 · 양강襄彊 · 경구景駒 · 회왕懷王 웅심熊心 · 항우項羽가 번갈아 일어나 왕으로 자호自號하고 한 고조 6년, BC 201년에 소멸하였다)나라 의제義帝(초회왕楚懷王 미웅심 熊心을 항우가 높여 일컬은 칭호로, 임시 황제, 또는 대중이 추대하여 천명天命을 받는 절차 없이 세운 황제의 뜻으로, 의義는 의부義父나 의자義子처럼 일컬으며 앞에 붙이는 의義와 같다)가 문밖에 이르러 대왕을 보기를 청하나이다.”

이에 염라왕이 황망히 일어나 문밖으로 나가서는 의제를 맞아들여 전상殿上에 올라와 마주 좌정하였다. 염라왕이 이윽고 눈을 들어 의제를 살펴보니, 의제가 그 머리에 봉관鳳冠(봉황을 형상한 모자)을 쓰고 몸에는 용포龍袍(용을 수놓은 도포)를 입고 손에 백옥으로 된 왕홀王笏을 들었는데 얼굴은 흰 옥과 같고 기골氣骨이 청수淸秀하며 풍채가 준일俊逸한지라, 염라왕이 마음속으로 흠탄欽歎하여 마지 않으면서 공경하는 태도로 물었다.

“폐하께서 무삼 일로 이러한 누지陋地(누추한 곳)에 옥가玉駕(제왕의 존귀한 수레)를 왕굴枉屈(굽혀 이름)하시니이까?”

의제가 허희噓 로 길게 탄식하며 입을 열었다.

“짐朕(‘나’라는 뜻의 황제의 자칭)의 조상이 여러 대를 초왕楚王으로 부귀를 누리다가 짐의 조부 회왕懷王에 이르러 굴원屈原(전국시대 초楚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평平 또는 정칙正則, 자가 원原이고 호는 영균靈均이다. 회왕 시 삼려대부三閭大夫로 정사를 주관하며 임금의 신임이 컸으나 다른 대부들의 참소를 받아 배척되니 이소부離騷賦를 지어 왕을 깨우치고자 했다. 양왕襄王 때 다시 참소받아 장사長沙로 유배되자 어부사漁夫辭 등 여러 편의 글을 남기고 멱라수汨羅水에 투신하였다. 굴자屈子로도 호칭되고 이소離騷 · 구가九歌 · 구장九章 · 천문天問 · 원유遠遊 · 복거卜居 · 어부漁夫 등의 명작을 남겼다)의 충언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릇 진왕秦王(진시황의 처음 칭호이다.

15면으로 계속